

제3차 미-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◆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 관련 양측 대립에 일부 진전 동향
- ◆ 美·EU 간 기술·산업·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는 지속될 전망
- ◆ 우려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확대에 협의

I. 무역·기술 위원회 회의 개요

- 제3차 미국·EU 무역·기술위원회(TTC) 회의, 워싱턴 D.C.에서 개최(12.5)
 - 미·EU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·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'21년 9월 29일 무역·기술위원회 출범
 -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주축으로 EU의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 관련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TTC 개최에 현지 관심 집중
 - △ 미국 측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,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,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으며, △ EU 측은 마그레테 베스타거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
 - 친환경, 디지털, 공급망 등 주요 8개 의제에 관한 양자 협력 모색했으며, 양측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주요 내용을 발표

II. 공동성명 주요 내용

1. 디지털 인프라 연결성 강화(Digital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)

- 제3세계에 대한 기술 공급망 지원(ITCS) 노력
 - 미국 국제 개발센터(USIDFC)와 유럽투자은행(EIB) 주관으로 자메이카와 케냐에 기술 및 관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
 - 잠재적인 북미-유럽-아시아 간 기술 교류 활성화 사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표명

2. 신기술 협력(Cooperation on New and Emerging Technology)

-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인공지능·컴퓨팅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**AI 로드맵 및 시범 프로젝트 개시** * AI Roadmap and Pilot project on Privacy-Enhancing Technologies and AI and Computing Research Collaboration for the Public Good
 - 무역 신뢰성 증대, 무역장벽 완화, 위기관리 능력 강화, 시장 경쟁성 강화, 인권 보호 등의 연구주제를 조사할 시범 AI 프로젝트 공동 착수
- ② 양자 기술 협업(Collaboration on Quantum)
 - 퀀텀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안 개선안을 공동 논의하여 양자 간 교류를 저해하는 연구·개발 장벽 완화
- ③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(Electric Vehicle Charging)
 -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(MCS) 기준, '23년 정부 주도 추진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사업 계획과 전력망 통합 기술(VGI) 공동 제안 방안 논의
- ④ 기타 표준·연구 협력(Other Standards and Research Cooperation)
 - 플라스틱 재활용, 디지털 신원정보, 양자내성암호(PQE), 사물인터넷(IoT) 기술과 관련된 기준 및 보안 수준을 강화
 - '22년 5월 공개된 전략적 표준화 정보(SSl)의 국제 표준화 노력 지속 및 차후 협력할 기술 의제* 선정

* 차후 의제에 양자 간 5G, 6G 사업 협력 강화가 포함될 전망

3.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(Building Resilient Semiconductor Supply Chains)

- 양자 간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필요성 논의
 - 현재 반도체 수요를 공유, 미래 수요 예측 모델을 점검하고 향후 반도체 산업 투자 및 연구·개발 방안 공유
- 반도체산업 보조금 경쟁 완화에 동의
 - 미국 반도체·과학법 입법과 EU 반도체산업 지원법 추진에 따른 경쟁 고조 가능성을 우려, 투명한 정보 교류를 통한 불필요한 경쟁 회피에 동의

* CHIPS and Science Act : 520억 달러 보조금 지원, European CHIPS Act : 430억 달러 유치 전망

4. 온라인 가치 보호(Promoting Our values Online)

- ①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(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)
 - 보편적 인권 보호와 '자유롭고 저렴한 인터넷 접속'에 대한 미·EU의 지지를 공표하고, 선언에 동참할 신규 국가를 환영
- ② 온라인 인권 운동가 보호(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Online)
 -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에 대한 위협·감시 노력을 차단하고, 보호 규범을 강화해 미·EU의 인권 증진 노력 증진
- ③ 인터넷 셧다운 문제 해결(Addressing Internet Shutdowns)
 - 정부 주도의 인터넷 접근권한 차단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각 정부의 인터넷 셧다운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우려국에 대한 외교 노력 확대

5. 대서양횡단 무역 강화(Enhancing Transatlantic Trade)

- ① 디지털 기술 활용도 증대(Increasing the Use of Digital Tools)
 - 미·EU 간 무역 정책, 법적 요구사항, 규제 요구사항을 디지털화해, 양자 중소기업의 상호 시장 접근성 증대
- ② 상호인정협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구상(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nd Conformity Assessment-Related Initiatives)
 -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망 개선을 위해 백신, 플라즈마(plasma-derived) 의약품 등 의약 제품 제조에 관한 상호인정협정* 체결 논의
 - * 협정 당사자 간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평가를 인정해 교역 시 시험 기간과 비용을 단축
 - 특정 라디오 장비를 포함한 해양 장비 규범 수립 등 향후 표준 단일화 노력을 통한 상호인정협정 확대 방안도 언급

6. 무역·안보·경제 번영(Trade, Security, and Economic Prosperity)

- ① 수출통제 협력(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)
 - 이중용도 기술 제품의 수출·재수출 간소화, 수출통제 리스트 공동 검토, 신규 공동 수출통제안 협의 강화, 신흥 기술 공동 보호 방안 구상을 논의

② 투자 모니터링 강화(Investment Screening)

- 중요 인프라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우려국 투자가 일으킬 안보 위협을 논의하고 위협 해소를 위해 투자 모니터링을 심화할 필요성 공유

③ 비시장 경제 정책 및 관행 해결(Addressing Non-Market Economic Policies and Practices)

- 정부 또는 관련 기구 재정이 투입되는 비시장 관행을 공급망 다변화로 저지하고, 의료 기기 등 중국의 정부 주도산업을 공동 견제할 방안 논의

④ 경제적 압박 대응(Addressing Economic Coercion)

- 경제 관계를 통한 정치적·외교적 압박을 국제 안보·안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, 동맹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

7. 무역 관련 환경·노동·보건 구상(Trade-Related Environment, Labor, and Health Initiatives)

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협력(Transatlantic Initiative on Sustainable Trade)

- (1) 단계적인 탄소 감축 정책 도입과 (2) 환경 기술 개발 박차를 위해, 탄소제로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배치 촉진

② 무역·노동 담화(Trade and Labor Dialogue)

- 국제 무역과 공급망 내 강제 노동 관행 철폐를 위해, 관련 노동·기업·정부 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 확대

③ 연구용 보건 데이터(Health Data for Research)

-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연구·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경 간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규정 논의

8. 디지털 전환과 경제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(Developing Talent for the Digital Transition and Economic Growth)

- 인재 육성 TF를 통한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 공동 양성, 고령 인구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방안 논의 및 정책 개선안 교류

Ⅲ. 전망 및 시사점

□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진전 동향

- EU집행위, “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‘정치적인 용기(Political Courage)’를 보여줄 것”을 촉구
 -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유럽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도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조치를 취하길 기대
 - 미국은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‘미국-EU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 TF’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, 다음 TF에서 이번 TTC 회의 때 논의한 IRA 사항을 협의하기로 발언
- 현지 언론은 공동 기자회견 내용 중 미국 국무장관과 EU 부집행위원장이 IRA 관련 양자 갈등 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에 주목
 - 이에 따라,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큰 재무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 라인에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현지 관심 증대

□ 미·EU 간 공조를 통한 대중견제 심화 가능성에 주목

- 민감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 약화 가능성 존재
 - 산업 보조금 경쟁 완화, 기술 표준논의, 첨단 기술 교류 확대 등 양자 협력이 강화될수록 우려국이 기술 분야에서 고립될 것으로 예상
 - 항공, 의료장비,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을 비롯, 향후 중국 정부가 지정한 10대 집중 지원 분야*로 견제가 확대될 가능성 언급
- * 의료 장비, 정보기술, 로봇틱스, 자동화 기계, 항공기 부품, 신재생에너지 운송 수단, 전력 생산 및 송전 등
- 양측이 대중 철강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중
 - 미·EU는 중국의 고탄소 철강생산과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 협력을 합의한 바 있음.(21.10월)

- TTC 회의에도 대중경제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,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·과잉생산으로 232조 조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

□ TTC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

- 현지 기관들은 TTC에서 협의한 내용의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음에 주목
 - 대중경제, 러시아·우크라이나 분쟁,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,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정책 등이 의제에 포함되며, 주요 현안 논의의 장으로도 활용
 - 미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제3차 회의를 두고 TTC가 “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결과를 달성”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
- TTC 의제와 논의 결과가 IPEF에도 반영될 가능성 상존
 - 현지 연구소 아틀란틱 카운슬이 IPEF를 통한 무역 증진 방안으로 TTC 기술 표준을 IPEF에 반영하길 주문하는 등, 현지 기관들은 TTC의 기술·규제 표준화 선도 역할을 강조
 - 이에 따라, 제3차 TTC 논의 내용과 12월 IPEF 회의 내용 간의 접점을 확인하고, TTC 주요 의제가 IPEF에서 다뤄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
- 제4차 TTC 회의는 '23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며,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스웨덴이 개최지로 유력하게 전망됨.

[자료원] 미국 무역대표부, Inside Trade, Politico, Washington Post,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/ 끝